

## 01. 선생님 이해시키기

파커, 파머는 그의 저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이야기 합니다. ‘교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요령과 기술을 말해주는 것이 더 실용적인 것이 아닌가?’에 대한 반문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곧 나 자신에게로 달려가는 용기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령과 기술은 아이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머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만 이야기했지 그것을 가르치는 ‘누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제 그 ‘누구’를 이야기 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교직을 선택하지만 가르치는 두려움을 느끼고 희망을 잃고 지쳐가는 교사가 많다는 것에 공감을 하는 이 책의 구절을 하나 더 인용을 하면 “화성에서 온 것 같은 아이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민은 적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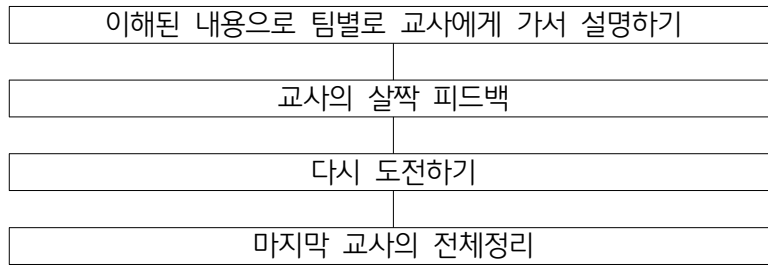
브리크와 슈나이더는 ‘인간관계의 신뢰도’가 학업성취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그 ‘누구’인 학생들을 알아가고 그들에게 외면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맞닥뜨리는 방법, 그리고 인간관계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법 이것이 수업현장에 들어와야겠지요. 결코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사로서 아이들과 신뢰회복은 자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도 이해하고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수업방법중 하나가 ‘선생님을 이해시켜라’라는 미션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교사의 강의와 아이들이 질문 만들고 토론하면서 결과를 도출하여 또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설명하는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이해시켜라!! 이런 미션을 가지고 하는 수업은 모듈별 팀웍이 중요합니다. 짝과 팀을 이루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끙끙거리며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거나 몰라서 완전 무관심일 수 있는 단원이면 더욱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교사되기라는 의미가 가장 잘 살아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교사의 강의
질문 만들고 팀별로 이야기하면서 이해하기
노트정리하기



수업한 내용을 아이들끼리 질문을 만들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서로 합의가 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과 성향이 다른 아이들이 강한 쪽으로 이야기가 끌려가서 수업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과 주도권을 줘야하는데 준비 안 된 우리 수업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인원도 많고 수업시간도 짧아서 잘 하고 있는지 피드백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수업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 수업을 도입해서 시도해보고 계속해보면서 교사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피드백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잘 하고 있는지 격려와 피드백을 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교육현실입니다. 필자는 이 강의를 그동안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 수업을 하시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보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수업진행 때의 마음은 어떤지를 서로 나눌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럴 시간만 있다면 더 쉽게 이 수업을 진행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교사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토론하는 선생님들은 진전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아이들에게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브루타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 교재, 그리고 선생님입니다. 1:1 수업입니다. 교사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와 닿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갈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정해가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 없이 도입된 질문수업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교사의 피드백이 개개인에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상대하는 아이들의 수는 많고 수업시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유대인의 하브루타를 직접도입해서 지속한다는 것의 무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육실정에 맞는 질문수업의 연구와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이해시켜라!!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교사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한 후에 아이들 각자가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만든 질문으로 짝끼리 혹은 모둠에서 서로 답을 하면서 오늘 수업의 내용에 관해 정리를 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수학이라면 개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때 교과서에 나온 간단한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께 모듬이 다 나옵니다. 아니면 모듬이 손을 들면 그 곳으로 가

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아이들은 준비를 좀 더 하게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나오려면 모둠이 4명 정도가 좋을 것입니다. 이때 설명하는 학생을 누가 정할지도 다시 의논해 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적이 좋은 아이가 늘 발표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발표하게 하는 방법도 학생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설명을 하면 선생님은 잘 듣고 난 후 부족한 부분을 다시 질문으로 돌려줍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4강에서 교사의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을 다시 질문으로 되돌려 주기,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아이들에게는 구체화된 예를 들면? 정형화된 이야기를 하는 모둠에는 또 다른 생각이나, 다른 책과 과목에 연결된 예는 없는지? 실생활과 관련된 예는 없는지? 등을 질문해주면 다음 수업 때에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수업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앞으로 나온 아이들을 관찰하기가 더 쉽습니다. 태도를 보아도 행동형인지, 규범형인지, 탐구형인지, 이상형인지 잘 보이지요. 그러면 교사는 유형에 맞는 피드백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지(행동), 질서정연하고 규칙에 맞게 행동하려는지(규범), 자기만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지(탐구), 할 말은 많지만 나서지 못하는(이상)성향들을 살펴서 그 태도를 지지해주는 말만 해주어도 아이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선생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교감을 할 수 있으면 자기주도적인 수업을 함과 동시에 두려움보다는 친근함과 마음이 함께 하는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관심을 먹고 자라지요. 선생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필자가 추천하는 수업방법중의 하나입니다.

## 02. 친구 이해시키기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IQ보다 더 무서운 것은 메타인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명확히 알고,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하는 것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내 안에 있는, 즉 내가 알고 있는 단서를 활용해 배우고 낯설게 보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인지활용법이 가장 탁월한 친구를 이해시켜라!!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 할 수 있는 수업방법입니다.

첫째. 말하는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Think aloud” 소리 내어서 생각하기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서로 설명하기가 학습효율성이 가장 크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업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하는 수업자체가 힘이 듭니다. 내가 말을 하는 수업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수업시간이 길지 않는 시간인데도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지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사가 혼자 끌고 가야하는 시간, 그리고 입을 다물고 하라

는데로 끌려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것을 극복하고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수업. 바로 내가 말하는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수업이 짝을 이해시키는 수업입니다. 친구 이해시키기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둘째. 공부하는 효과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설명해야 할 때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친구를 이해시킨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이해시킬 때에는 어떻게든 알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도 질문을 만들어보면 친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아야하는지를 알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 도움을 친구에게 받을지 아니면 선생님께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떤 책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고민하는 과정이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진짜 공부가 아닐까요? 고민다운 고민은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답니다.

셋째. 메타인지 활용의 크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선생님을 이해시켜라는 선생님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가 쉽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가기까지 과정이 조금 힘든 공부과정이지 막상 선생님께 가면 무엇을 말해도 잘 알아들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은 횡설수설해도 괜찮습니다.

친구를 이해시킬 때에도 나보다 더 잘 이해한 친구나 성적이 괜찮은 친구라면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도 잘 이해해 주어서 쉽습니다. 설사 조금 잘못 설명을 해도 잘못된 설명까지 다시 가르쳐 주므로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나보다 더 이해도가 떨어지는 친구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 이 수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가 성적이 아주 안좋은 아이들을 만나서 시간낭비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메타인지의 효과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것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기할 수 있으면 즉 가장 쉽게 설명할 수가 있으면 그 과정을 전부다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론을 전문지식이 없는 초등학생에게 설명이 가능하다면 진짜 전문인인 것이지요. 제가 있는 지역의 명문고등학교의 전교1등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사교육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학년 불문하고 누구라도 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거절하는 법이 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 학생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염려하는 선생님이 좀 거절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들고 오는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제가 몰랐던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공부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친구이지요. 인성까지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이해시키기입니다. 인성교육의 문제점이 혼자 공부하게 하기때문이라는 말이 과언은 아닌 듯 합니다.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설명을 한다면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입니

다. 정말 이해 못하는 친구에게 설명하려면 기초지식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이것을 말로 설명하는 효과 그 힘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되는 최적의 기회가 되겠지요.

친구를 이해시켜라라는 미션은 소리내어 생각하기, 스스로 자료를 찾아 공부하는 효과, 무엇을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의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메타인지의 극대화하는 수업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이해 시켜라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강의가 강의를 합니다. 학습내용에 관한 미션을 교사가 제시합니다. 이때 짝을 어떻게 정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방법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반 전체 레포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면 무엇인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친구가 교단앞으로 나와서 전체를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은 질문을 통해서 도와주기를 합니다. 전체를 이해시키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잘 이해한 친구가 모둠에서 교사가 되어서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절히 설명하는 방법,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을 나름 고민을 해야겠지요. 이때에도 모둠을 정하는 방법을 의논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수업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이런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짝끼리 서로 설명하기도 있습니다. 앉아있는 상태로 해도 무방하고 꼭 배우고 싶은 친구 찾아가기라는 미션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 수업을 할 때에는 수업취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공부하기의 위력,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때의 뿌듯함,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등 여러 가지 공부의 효과가 많지만 그중 메타인지에 대한 자료를 찾고 토론을 반복하면서, 그 효과에 아이들이 손맛을 본다면 스스로 하고, 친구와 함께 하는 공부가 더욱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 03. 교실수업에서 유용한 토론의 모형

#### 가. 사고방법

짝끼리 혹은 모둠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에도 몇 개의 틀이 필요합니다. 기법이 우선인 것은 아니지만 학습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함께 하는 학습일수록 공통된 의견수렴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방법들 중에서 잘 쓰일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토의·토론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고의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트정리라든지,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토론을 할 때도 필요한 사고의 방법은 잘 익혀두어야 합니다. 쉽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잘 쓰지 않지요. 수업시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고 방법	내 용	효 과
질문 만들기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기	생각을 깨운다.
개념 찾기	정확한 용어와 상황에 대한 정리하기	주어진 단서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분석하기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알기	개념 찾기와 함께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여 학습의 기본을 갖춘다.
공통점 차이점 찾기 (비교하기)	비슷한 점, 같은 점, 다른 점을 찾기	낯설게 보기를 시작한다.
상상하기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틀을 깬다.
감정이입하기	어떤 느낌인가?	나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
분류하기	같은 종류끼리 묶기	체계, 구조화 연습을 할 수 있다.
연결하기	속성을 찾아 다른 것과 연결하기	다른 사물끼리, 다른 사고끼리, 다른 세상끼리 연결이 가능해진다.
적용하기	경험과 연결시키기	지식과 삶과 연관성이 있음을 안다.

#### <사고의 방법>

공부는 이 사고의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창의성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중에 토의나 토론이 필요하다면 이 방법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질문을 만들면서 분석하기, 비교하기, 상상하기, 감정이입하기, 분류하기, 연결하기를 통해 자료에 접근을 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 정리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분석하라', '비교하라', '상상하라', '감정이입하라', '분류하라', '연결하라'는 명령 없이도 아이들이 자료를 잘 가공하는 능력을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수업에서 잘 사용하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많은 질문을 만들면 거의 사고방법 6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더 크게 분류하면 분석(내용)하기, 상상하기(상상, 연결), 적용(감정이입)으로 나뉘는 것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시를 공부하면 감정이입을 해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지요. 환경문제가

나오면 분석과 분류가 필요할 테구요, 수학은 분석으로 개념정리가 필수입니다. 과학은 분석과 분류, 비교도 들어가겠군요. 국어과는 분석, 분류, 비교, 감정이입, 그리고 적용도 많이 쓰이겠지요. 융합은 모든 과목에 필요한데 과목과 과목연결, 교과와 일상의 연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 바로 창의의 다른 이름인 연결하기입니다.

#### 나. 토론수업모형

혼자 하는 수업이 아닌 2명이상 함께 하는 수업이 토론수업이므로 서로의 의견 수렴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과정은 잘 듣고, 잘 말하기, 서로의 의견 존중하기가 잘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토론수업이라고 하지만 토의수업도 포함한 수업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기에 적절한 토론수업모형을 제시해보겠습니다.

##### ▶ 선택모형 토론

- (1) 갈등상황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 (2) 찬/반 토론이 필요할 때도 가능하다.

질문 만들기		각각의 이유(근거)찾기		이유를 검토하기		서로의견 주장하기		적절한 대안 찾기
-----------	--	-----------------	--	-------------	--	--------------	--	--------------

##### ▶ 신호등토론

찬반을 결정하지 않는 중립적인 의견이 있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찬/반 어느쪽도 선택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의사표시 방법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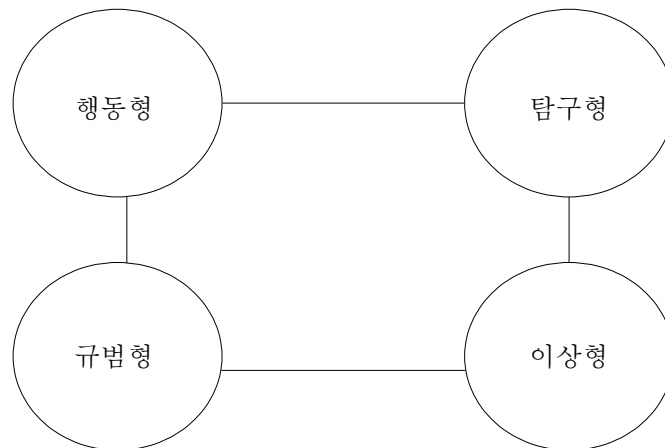
빨강, 노랑, 초록색의 카드로 준비하거나 찬성, 반대, 중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 ▶ 모서리토론

예를 들어 여름 휴가지를 선택할 때 산, 바다, 집, 강 등이 나왔을 때 각 주장의 근거를 들어서 같은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 4개의 의견을 자신들의 근거를 강화시킬 수 있는 토론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성격유형(행동, 규범, 탐구, 이상)을 한 곳으로 모아서 토론하는 생각을 각 유형별로 어떤지 알아보거나, 각 성격유형을 섞어서 토론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으로 써 본다면 유형별 질문의 형태나 사고의 방법, 유형 등을 잘 알 수가 있겠지요. 서로 다름을 알아보는 좋은 토론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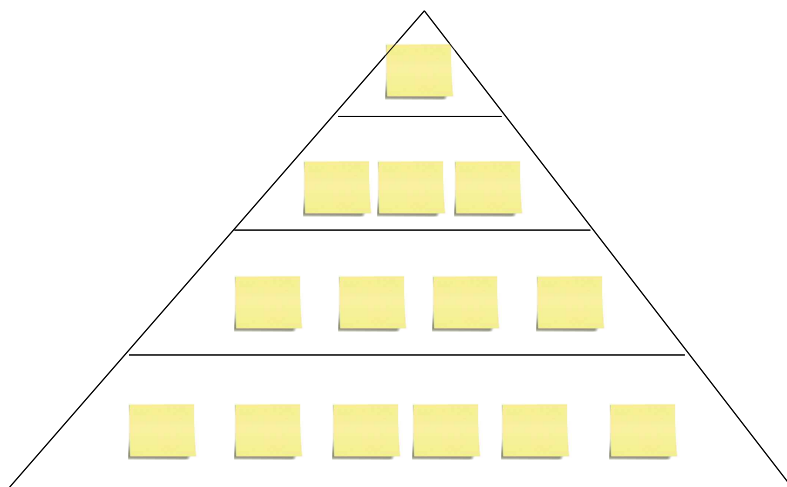


▶ 피라미드토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를 함께 토론을 해 보는 방법입니다. 포스터 잇을 활용하면 편리하고 아이들이 재미있어합니다. 포스트잇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연필로 써 가도 좋습니다.

예)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 각자 포스트 잇 3장씩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을 한 장에 한 가지씩 적어 봅니다.
- 두 사람이 모여서 6장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덕목 4가지를 고릅니다.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의견을 적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선택을 합니다.
- 다음으로는 4사람이 모입니다. 각 팀이 고른 4가지를 합해 8가지 중에서 다시 덕목을 3가지 고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합니다.
- 3가지 중 한 가지를 골라서 붙이고 조별로 그 이유에 대해 발표를 해 봅니다.
-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에 대해 근거를 찾아 글을 완성해봅니다.





## 공자의 피라미드 토론

- 공자 : 식량이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하게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 자공 : 어쩔 수 없어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 공자 : 군대를 버린다.
- 자공 : 어쩔 수 없어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 공자 : 식량을 버린다. 예로부터 모두에게 죽음은 있는 것이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 ▶패널토론

각자의 입장에서 각각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청중들의 질의문답을 받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배출권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각자의 입장을 찾아보고 발표를 하고 지켜보는 학생들은 청중이 되어 질문을 하고 패널들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들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 ▶P.M.I 토론

장점(Plus)과 단점(Minus) 질문을 통해 찾아보고 대안점(Interesting)을 찾아보는 토론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토론주제가 '시험'이라면 시험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는 겁니다. 장점도 단점도 질문으로 바꾸어 보면 좋습니다. 장 · 단점의 균형을 맞추어보고 시험을 가장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회과목에 잘 어울립니다. 민주주의, 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등 많은 제도들을 한 쪽 면에서만 보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고 단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다양한 토론방법이 있습니다만 수업시간에 자유롭고 자주 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